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 내달 3일 개최

혁신적 '라이브 커머스' 방식...온·오프라인 동시 소개

영암군이 다음달 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의견으로 영암군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을 가꿔간다는 취지이다.

영암군은 지난 4월부터 개인, 단체 부문으로 나눠 영암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검토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높였다.

영암군은 혁신페스티벌의 진행방식도 혁신한다. 단순 발표와 정책 나열에서 벗어나 실시간 소통 제품 판매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방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소개하기로 했다.

판매된 정책은 심사위원 심사, 행사 참가자 전자투표 선호도 조사를 합산해 평가된다. 페스티벌에서는 우수회 영암군수의 균형 방향 발표와 함께 영암군의 새 슬로건과 캐릭터도 공개된다. 이들은 민선 8기 영암군의 구호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상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에서는 '혁신·수·도' 사행시 짓기, 멀티상영관 운영 등 체험관이 열린다. 지역 아동합창단과 관공과 가수 축하 공연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도 달궂을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혁신·수·도' 사행시 짓기, 멀티상영관 운영 등 체험관이 열린다. 지역 아동합창단과 관공과 가수 축하 공연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도 달궂을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활동 시작

우렁각시 봉사단, 월 1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진도군이 재능기부 전문 자원봉사자 '우렁각시 봉사단'을 구성해 최근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렁각시 봉사단은 취약계층을 방문, 정돈되지 의류, 물건, 가구 등을 다양한 수납 도구로 용도에 맞게 분류·정리하고 재배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봉사단은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재능자원봉사자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정리·정돈 뿐 아니라 정돈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의류 개기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

했다. 정리된 방을 본 주민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봉사단의 활약으로 집이 깨끗해졌다"며 "봉사단 한 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우렁각시봉사단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 정리 등을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우렁각시 봉사단은 월 1회 재능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목포해상W쇼 3회차 공연' 24일 개최

목포시는 아름다운 목포 여름밤을 더욱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펼쳐줄 목포해상W쇼 3회차 공연이 오는 24일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개최되는 목포해상W쇼는 지난 4월과 5월 웅장한 초대형 불꽃쇼를 선보이며 목포 대표 야간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해상W쇼는 목포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가수의

신나는 히트곡을 퍼포먼스 공연팀과 관객들이 하나되어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형 불꽃공연이 준비됐다.

해상무대에 LED조명을 추가 설치해 파티형 공연과 불꽃쇼의 볼거리 수준을 높여 오는 12월까지 춤추는바다분수가 시설 개선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완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를 늘려 소통의 장도 확대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눈길'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운영·굴패각 재활용사업 신규 개설 등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총 44개 사업 활발 추진

해남군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4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직종의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면서 일자리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활발히 운영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반찬 사업단으로 미남반찬 사업단은 지난해 2호점까지 개설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내 농수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재료에 어르신들의 손맛이 더해져 집 반찬과 다를 바 없는 정성이 인기의 비결이다.



또한 해남의 특산물인 김을 이용한 미남부각 사업단은 일반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스낵형 부각을 전문으로 해 토크푸드 등 지역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해남미소와 남도장터 등 온라인 몰까지 진출하여 건강한 간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6월부터는 신규 시장형사

업으로 굴패각 재활용 김 종패 제작 사업단을 운영한다. 김 인공채묘를 위해 포자를 부착하는 종패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김 양식 산지인 화산면 관동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해남군 노인일자리사업은 14개 읍면과 민간수행기관 4개소에

2,382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내 활동을 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최대 59만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군은 지난 2019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특색 있고 호응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미남반찬, 미남부각 등 시장형사업을 비롯한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인구의 34%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는 해남군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 청년들, 지역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해 뭉쳤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격 시작

완도군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군에서는 7개 팀(37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7개 청년 공동체는 ▲완도군만의 이도모터카 개발 및 그림책, 열쇠고리 등 소품 제작 홍보 ▲우드버닝 및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색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악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페리수납, 페리류 재활용 장비구입, 음료수 캐리어 등 제작 ▲전북 활용 음식 연구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은 지속적으로 청년 공동체 간의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활동이 마무리되면 군주체로 그동안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성 기자

강진 수국길축제 기간

떡깨비 주문 5천원 할인

강진군이 수국길 축제 기간에 맞춰 '떡깨비'로 주문 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강진군은 오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강진군 수국길축제'와 연계해 '공공배달앱 떡깨비 5천 원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는 떡깨비에서 축제 기간 3일 동안 1만 5,000원 이상 배달 주문 또는 포장시 5천 원 할인쿠폰이 매일 제공된다.

가맹점에서 발행한 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하고, 특히 주말에는 배달비 3천 원 할인쿠폰까지 가능해 최대 8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떡깨비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구입 시 받는 10% 할인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더욱 크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떡깨비는 입소문을 타고 알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6월 13일 기준 누적 주문수는 17,273건으로 결제금액은 4억 2천만 원을 돌파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위원장이·취임식 개최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이·취임식이 지난 20일 호탈현대바이 라한 목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안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발전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앞장서 온 제1대 이도명(現 ㈜두손건설 회장)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2대 도정훈(現 크레도오프쇼어주 대표)위원장이 취임, 새롭게 이끌어 갈 첫발을 내디뎠다.

도정훈 신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는 신안군과 어업인,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조기 조성 및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간 힘을 합쳐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에 대한 대비와 발전사 협의체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때"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해상풍력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재영 기자

건강의섬 완도

청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 영탁